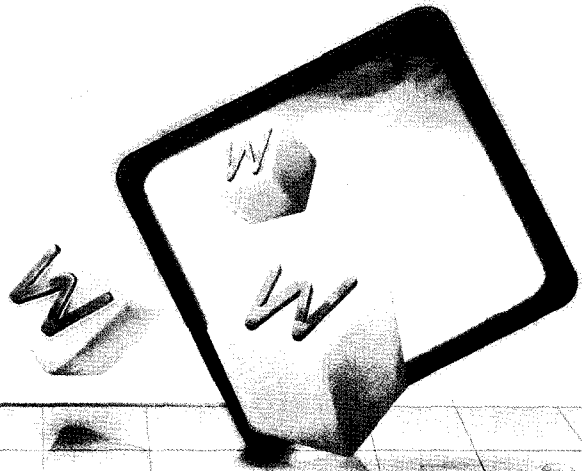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권영진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간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협력표준화팀



■ 1. 머리말

최근 전자출판물 시장은 단말기 가격 하락, 콘텐츠 다변화(e-북, e-교과서, e-신문 등), 여행 및 출퇴근 시 ICT 단말기 활용 일반화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e-북, e-신문, e-잡지 등의 전자출판물을 다양한 유통경로(온라인 서점, 온라인 신문사, 통신사 등)를 통해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iPad) 출시로 세계 시장은 콘텐츠와 서비스의 다변화로 인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패드가 국내에 출시될 경우 모바일 전용단말기의 보급 증가로 인한 출판물, S/W, 단말기, 통신, 유통 등 관련 시장의 확대 및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2. 전자출판물 시장의 변화

세계적으로 종이책 대비 e-북의 비중 확대로 폭발적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e-북 단말기의 가격 인하로 e-북의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킨들, 아이패드 등 국제적으로 전용단말기와 콘텐츠 서비스가 융합되어 판매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최대 e-북을 보유한 디지털 교보문고도 6만여 종에(아마존은 30여만 종) 불과하고 신간 출판비중도 낮다. 또한 국내 시장의 대부분이 B2B 거래 위주이며 규모도 1,300억 원에 불과해서 B2C 거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가 시급하며 국내 단말-유통-통신 업계 간의 개방형 콘텐츠 유통환경 구축이 절실한 실정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 (단말) 100만 대(2008년) → 7,700만 대(2018년)로 전망되며 e-북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e-ink의 매출은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억 달러로 2008년 전체매출 대비 250% 성장
- (콘텐츠) 21억 달러(2008년) → 82억 달러(2014년)로 전망

[PwC : 글로벌 컨설팅 기업]

〈표 1〉 출판, 유통, 단말, S/W 시장별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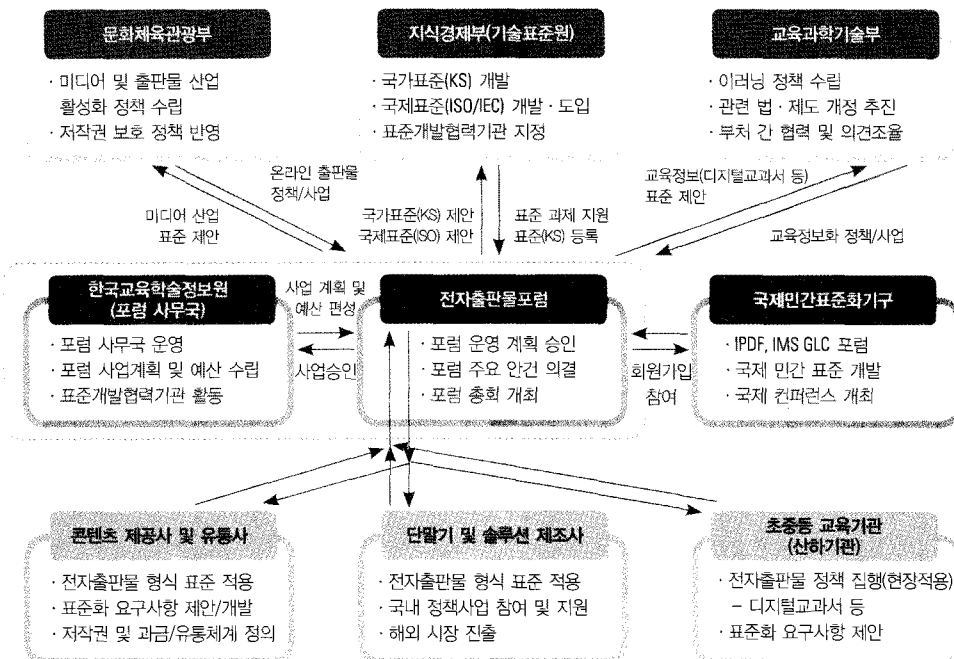
구분	참여 기업(기관)	
출판 (콘텐츠)	일반도서	아마존, 김영사, 민영사 등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중앙일보, 뉴스타임즈 등
	잡지	스포츠 조선, 월간조선 등
유통	서점	교보문고,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등
	IT기업	구글, 애플 등
	통신사	KT, SKT, LGT 등
단말	서점	인터파크, 아마존, 반스앤노블스 등
	IT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아이리버, 인큐브테크, 소니 등
솔루션	IT기업	한글과컴퓨터, 유니덕스, 어도비 등

준화 관련 정책과 연계, 산업계와 컨센서스 도출 및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표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출판 산업 분야별 표준화 로드맵을 개발해 단계적인 국가표준 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우리 기술의 발굴 및 국제표준(ISO, IDPF 등)의 제안·반영 등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내산업 육성을 위해 손잡았다. 이를 통해 3개 부처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3. 전자출판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을 통해 각 부처의 표

- 교육과학기술부: e-교과서 보급,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교육 혁신
- 지식경제부: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표준 기술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및 출판 산업 육성과 시장 효율성 제고



4.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출범

이머징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국내 전자출판물 공통 표준 개발·보급과 해외 표준 대응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공기관, 학계, 언론사를 비롯하여 유통사, 단말사, 통신사 등 산업계를 포함, 현재 40개의 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포럼 사무국은 국내 교육정보화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맡고 있다.

2010.03.03	2010년 표준화전략포럼 지원 대상자 선정 ※TTA(ICT 사실상 표준화 지원 사업)
2010.04.08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발기인 대회 개최
2010.04.23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창립총회 개최
2010.05.08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운영위원회 개최
2010.06.25	국제민간표준화기구 IDPF 회원가입
2010.07.02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기술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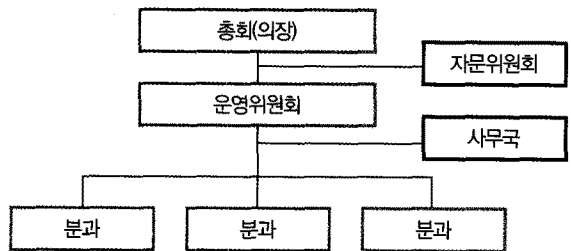
이번에 출범한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은 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출판물, S/W, 단말기, 통신, 유통 등 관련 시장의 확대 및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에서 자유로운 콘텐츠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전자출판물의 포맷, DRM(디지털 권리 관리)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는 '개방형 전자출판물 유통환경' 구축을 통하여 시장 확대 지원을 위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포럼은 TTA단체표준(de-facto)과 국가표준 제정 및 정기세미나, 기술 워크숍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관련 산업계 및 수요자들의 참여와 활성화 촉진을 지원한다. 포럼을 통해 개발되는 주요 표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전자출판물 포맷 표준 : e-북, e-신문, e-잡지 등을 표현하는 규격
- 전자출판물 패키징 표준 : 콘텐츠의 공유·유통 활성화를 위한 규격
- 전자출판물 메타데이터 표준 : 콘텐츠의 검색·관리 등 서비스를 위한 규격
- 전자출판물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 : 콘텐츠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규격
- 전자출판물 멀티미디어 요소 표현 기술
- ※ e-북, e-신문, e-잡지 등의 전자출판물 대상

5. 사무국의 역할 및 포럼 체제 구성

포럼 사무국(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내 전자출판물 산업 표준 체계 확립을 위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현안 협의 및 공개 세미나 개최, 표준화 중장기 로드맵 연구, 전자출판물 표준(안) 개발 등 추진과 국제적으로 민간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 분석, 비즈니스 모델 교류 및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협력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전자출판물표준화 포럼은 다음과 같은 체제하에 운영된다.



- 운영위원회: 포럼 사업 계획 및 예산, 주요 의결사항 논의
- 전략자문위원회: 참여 기업 의사결정자들의 포럼 운영 전략 자문
- 기획 협력 분과: 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 세미나·워크숍 개최, 표준 보급·확산 등 추진
- 표준 개발 분과: e-북, e-신문, e-잡지 등 관련 표준 개발

6. 맺음말

표준의 목적이 과거 대량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에서 시장 선점·확대를 위한 국가·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수요자의 서비스 고도화와 다양화 요구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포럼은 표준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국내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표준(ISO)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은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 유통사, 단말사, 통신사 등 산업계가 주축이 되는 오픈 포럼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전자출판물표준화포럼 회원가입문의:

02-2118-1275, yjkweon@keris.or.kr **TTA**

